

## 모두 발언

2024. 1. 18.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
김 소 영

## I. 인사 말씀

안녕하십니까,  
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.

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 
137만명의 우리 청년들이 가입을 신청하여  
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하였고,

\* 누적 136.9만명 신청(재신청 제외), 51.1만명 계좌 개설 ('23말 기준)

이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 
매월 약 57만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.

\*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 56.5만원 ('23말 기준)

특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,  
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 
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고 있어  
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 
체감할 수 있었습니다.

\* 매월 납입한 청년의 수: 36.7만명 (두 달 이상 가입한 청년의 83.9%, '23말 기준)

그래서 저는, 오늘과 같이 가입을 고민하거나  
가입중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꼭 직접 듣고  
정부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,  
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.

## Ⅱ.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경과 및 계획

그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운영과정에서  
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.  
몇 가지만 말씀드리면,

❶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 
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 
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습니다.

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 
주거정책과 연계\*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며,  
비과세 적용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\*\*하여  
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고자 합니다.

\* 청년도약계좌 만기지급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(국토부)에 일시납 허용

\*\*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, 전전년도 소득 활용하여 가입 가능

❷ 두 번째는,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중인  
젊은 청년부모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

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과세소득이 없어도  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❸ 셋째, 자립 과정에서  
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

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\*에 추가하고,  
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 
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입니다.

\* 현재 ①사망 ②해외이주 ③천재지변 ④퇴직 ⑤사업장의 폐업 ⑥상해·질병

⑦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특별 중도해지사유로 규정

## Ⅲ. 연계가입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당부사항

청년도약계좌 관련 여러 개선사항을  
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, 가입에 불편이 없도록  
관계기관이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❶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 
청년도약계좌에 적시에,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

1.25일부터 진행되는 연계가입 절차 운영 및  
상품 안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❷ 취급은행은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이라는 측면을  
충분히 고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.

상당 기간동안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 
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 
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 
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의 개선을 당부드립니다.

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,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 
연계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 
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

❸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 
청년의 추가 자산형성, 주거, 창업, 교육 등에  
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 
다양한 방안을 검토,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#### IV. 맺음말

---

“부유해지고 싶다면, 버는 것뿐만 아니라  
저축하는 것도 생각하라”는  
벤저민 프랭클린\*의 말\*\*처럼

\* 美 '건국의 아버지' 중 한 명, 美 100달러 지폐 초상화의 주인공

\*\* "If you would be wealthy, think of saving as well as earning."

저축은 누구에게나, 특히 청년에게는  
자산형성의 첫걸음입니다.

청년도약계좌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 
높은 물가, 금리 수준 등으로 인해  
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

자금이 부족해진 후에 지원하기보다,  
애초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 
‘사후적인 금융지원’ 방식이 아닌  
‘사전적 금융역량 제고’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.

정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 
청년의 의견을 널리 듣고  
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기관들도  
청년도약계좌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 
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.

감사합니다.